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험 활동 때 방문했던 트릭 아트 체험관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특히 외나무다리 트릭 아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그림 위에 섰을 때 실제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트릭 아트에 대해 관심이 생겨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릭 아트는 주로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재미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대답을 듣고) 네, 토끼라는 대답도, 오리라는 대답도 있네요. 이 그림에는 두 동물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등근 부분에 시선을 두면 토끼로 보이고, (왼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길쭉한 부분에 시선을 두면 오리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일상에서 접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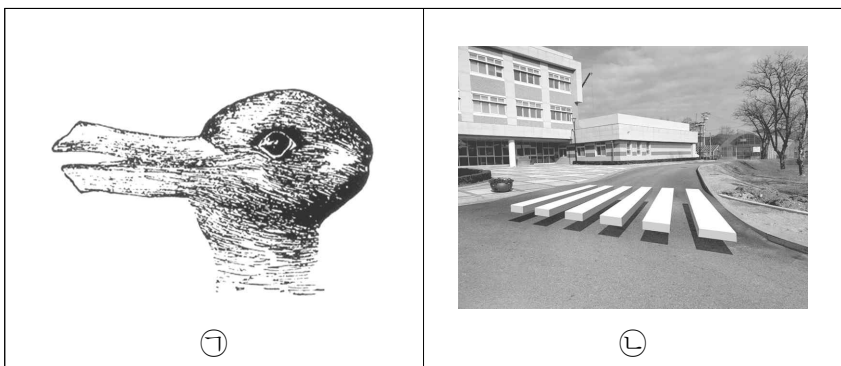
아, 질문이 있군요. (㉡ 질문을 듣고) 네, 눈은 외부의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혼선이 생길 때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은 이미지를 중첩시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대답을 듣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바닥에 그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트릭 아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가리키며) 이 횡단보도는 표지선 아래에 음영을 넣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것이지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실제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외에도 트릭 아트는 건물 외벽, 광고판, 관광지의 포토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트릭 아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에 있는 관련 책들을 찾아보거나 제가 보여 드리는 트릭 아트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③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이 설명 대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전시 환경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이해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트릭 아트의 긍정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사회적 의의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예술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시각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실용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트릭 아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트릭 아트의 대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④ 트릭 아트를 만들 때는 착시 현상만 활용하나요?
 - ⑤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4~7] (가)는 ‘활동 1’에 따라 실시한 독서 토론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하연’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 활동 1: 1970년대 소설인 「자전거 도둑」을 읽고, 아래의 주제로 독서 토론을 해 보자.

[주제] 자전거를 들고 간 수남의 행동은 정당한가?

- 활동 2: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가)

지현: 먼저 소설의 상황에 대해 말해 볼게. 바람이 세게 부는 어느 날, 수남은 배달을 갔어.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한 신사가 수남에게 너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자신의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고 말했지. 신사는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찾아 보상금을 요구해. 신사는 보상할 때까지 자전거를 묶어 두겠다고 하고 떠나버리는데 수남은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 과연 수남의 행동은 정당할까?

민준: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봐.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져 흠집이 난 거잖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까, 수남이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어.

하연: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었다면 수남이 자전거를 잘 묶었어야 해. 자전거가 쓰러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니 자전거를 관리하지 않은 수남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지현: 둘의 입장이 다르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소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

민준: ‘바람이 유난해서’라는 구절이 나오니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전거가 쓰러질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소설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하연: 바람이 유난해서 수남이 배달할 물건을 꼼꼼하게 묶는 장면이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지. 그런데도 자전거는 잘 안 묶어 두었잖아.

지현: 정리하면, 민준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니까 수남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고, 하연은 수남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가 없었기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구나.

하연: 그래, 맞아.

지현: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

하연: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로도 행동이 정당한지 판단해 볼 수 있어. 합의가 이뤄졌는데 수남이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간 건 정당하지 않아.

민준: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야. 신사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수남이 동의하기 전에 가 버렸잖아.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갔는데 합의라고 볼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건 문제가 없어.

하연: 일방적 제안은 아닌 거 같아. 신사는 수남이 울어서 보상금을 반으로 줄여 주잖아. 그리고 수남이 잘못했다는 대답도 해. 신사는 수남의 처지를 고려해 줬

[A]

고, 수남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합의가 이뤄진 거야.

민준: 신사가 수남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유한 어른이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일부러 찾아서 배달원 소년에게 5천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 큰돈을 요구했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매정한 행동이야.

지현: 같은 소설을 읽고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독서 토론의 주제로 ‘활동 2’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나)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수남은 신사의 자동차에 난 흠집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람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 수남은 배달 물건을 꼼꼼하게 묶었지만, 자전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실제로 태풍에 의해 주택 유리창이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예보를 듣고도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주택 소유자가 그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신사와 수남은 보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떠났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겠지만, 신사는 수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줄여 주었다. 또한 수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1970년대 배달원 소년의 입장에서 5천 원이 큰 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수남은 신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남은 도둑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합의된 것도 수행하지 않았다. 제목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전거를 자신이 훔친 수남인 것이다.

4. (가)의 독서 토론에서 ‘지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설 내용을 제시한 후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이 언급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
- ④ 토론자들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 ⑤ 토론자들이 다른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5.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준은 하연의 주장에 일반적인 상식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② 민준은 하연의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
- ③ 민준은 하연이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 ④ 하연은 민준이 사용한 단어의 중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⑤ 하연은 민준이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하연'이 세운 '활동 2'의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토론 쟁점에 대한 나의 주장을 토론에서 다룬 순서대로 서술해야겠어.
- ② 토론 주제와 관련된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 구절에서 찾아 언급해야겠어.
- ③ 토론에서 언급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의 주장을 강화해야겠어.
- ④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를 찾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 ⑤ 토론에서 내세운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밝혀야겠어.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법률 전문가의 뉴스 인터뷰]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물건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거나 타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해당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 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수남이 잘못을 인정한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수남의 자전거가 담보로 잡힌 것은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수남이 자신의 자전거를 묶어둔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신사가 수남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수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초고]
우리 할머니 댁은 남쪽 바다의 작은 섬에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연휴나 방학이 되면 매년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나는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 가면 바다에서 헤엄을 치거나 바위틈에서 고등과 게를 잡기도 했고 산에서 신나게 쌀 포대로 눈썰매를 타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다.

할머니 댁은 섬 서쪽 바닷가의 큰 등대 근처에 있었다. 검정 바위로 만들어진 거북이 조각상이 새하얀 등대를 이고 있어서 동생과 나는 그 등대를 '거북이 등대'라고 불렀다.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거북이 등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면 할머니 댁에 가까워진 것이라서 할머니를 곧 뵙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다. 할머니는 늘 우리를 마중 나오셨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뛰어가서 할머니 품에 안겼었다.

할머니는 마당 텃밭에서 옥수수를 기르셨다. 늦봄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와 같이 옥수수 씨를 뿌렸고, 여름 방학에는 점점 자라는 옥수수에 물 주는 일을 도와드렸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옥수수 껍질을 살짝 열어서 얼마나 익었는지 들여다보다가 할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했다. 꾸중을 듣고 시무룩해 있는 나에게 할머니는, "뭘든지 다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해."라며 토닥여 주셨다. 나는 익어가는 옥수수를 보며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늦여름에는 연두색 옥수수수염이 점점 갈색빛으로 물들며 옥수수가 여물었다. 가을에는 기다림의 결실인 샛노란 옥수수를 수확하며 나는 한 뼘 더 성장했다.

할머니께서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었던 기억도 있다. 서울에서 갈치로 만든 음식을 먹다 보면 갈치국을 끓여 주시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갈치국은 양념장을 넣어 칼칼하게 졸인 갈치조림과 달리 갈치, 늙은 호박, 배추를 넣어서 맵지 않도록 맑게 끓인 요리이다. 내가 갈치국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어시장에서 싱싱한 갈치를 사 오셔서 갈치국을 해 주셨다. 할머니의 갈치국에서는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다.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 맴돈다. 갈치국을 맛있게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할머니를 떠올리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진다.

지금은 어렸을 때만큼 할머니를 자주 뵈러 가지 못해 할머니와의 추억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8.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구상한 내용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처음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서의 어릴 적 기억
중간	[거북이 등대] ○ 할머니 댁에 도착할 때쯤 거북이 등대를 본 경험 ○ 할머니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렘. …… ㄱ
	[옥수수] ○ 옥수수 때문에 할머니께 꾸중 들은 경험 …… ㄴ ○ 옥수수를 통해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음. …… ㄷ
	[갈치국] ○ 할머니가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은 경험 …… ㄹ ○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보람을 느낌. … ㅁ
끝	소중하게 느껴지는 할머니와의 추억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글의 마지막에 할머니와의 추억이 너에게 주는 의미를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을 추가하면 더 좋겠어.

- ① 할머니 댁이 있는 섬의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그 풍경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 ② 섬에서 자란 나는 푸른 바다를 늘 그리워한다. 운솔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 ③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진다. 이번 방학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려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다.
- ④ 할머니 손길로 익어 가는 옥수수처럼 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물들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은 나를 채운 운기였다.
- ⑤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나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게 빛난다. 소중한 시간을 내게 선물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린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다. 어근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이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와 어근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로 나뉘는데,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기에 홀로 쓰이지 못함을 나타내는 붙임표(-)를 붙인다. 예를 들어 ‘햇-, 덧-, 들-’과 같은 말은 접두사이고, ‘-지기, -음, -계’와 같은 말은 접미사이다.

단어는 그 짜임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된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가령 ‘밤’이나 ‘문’과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며, 어근 ‘밤’, ‘문’이 각각 또 다른 어근과 결합한 ‘밤나무’, ‘자동문’은 합성어이다. 또한 어근 ‘밤’과 접두사 ‘햇-’이 결합한 ‘햇밤’, 어근 ‘문’과 접미사 ‘-지기’가 결합한 ‘문지기’는 파생어이다.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짜임의 단어를 이해할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를 둘로 나누는 방법으로, 나뉜 두 부분 중 하나가 접사일 경우 그 단어를 파생어로 보고, 두 부분 모두 접사가 아닐 경우 합성어로 본다.

[A] 가령 단어 ‘코웃음’은 직접 구성 성분을 ‘코’와 ‘웃음’으로 보기에 합성어로 분류한다. 이는 ‘코’가 어근이며, ‘웃음’이 어근 ‘웃-’과 접미사 ‘-음’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임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코웃음’의 직접 구성 성분을 ‘코웃-’과 ‘-음’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웃-’은 존재하지 않고 ‘코’와 ‘웃음’만 존재하며, 의미상으로도 ‘코+웃음’의 분석이 자연스럽게 직접 구성 성분을 ‘코’와 ‘웃음’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의 짜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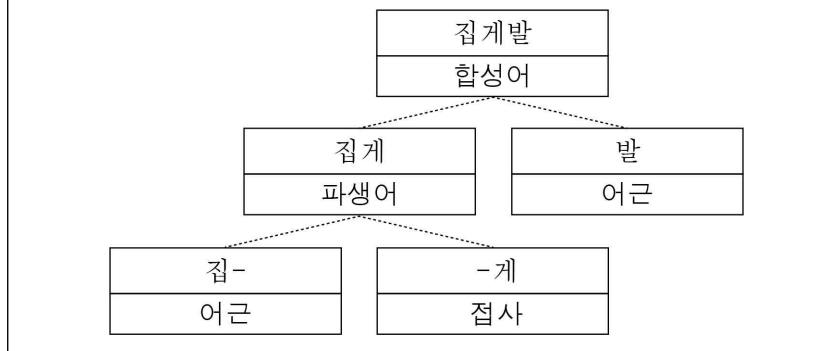
1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다.
- ②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포함된다.
- ③ 접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기에 붙임표(-)를 붙인다.
- ④ 복합어는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뉜다.
- ⑤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해당하는 짜임을 가진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재의 집게발’에서 ‘집게발’은 아래와 같이 ㉠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 ① 뷰음밥 ② 덧버선 ③ 문단속
- ④ 들고양이 ⑤ 창고지기

13.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음운이 앞이나 뒤의 음운의 영향으로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조음 방법만 바뀌거나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바뀝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학습 활동’을 수행해 봅시다.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조음 방법				
파열음	ㅂ	ㄷ		ㄱ
파찰음			ㅈ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영향의 방향	음운이 바뀌는 양상	
달 [↗] 님 (앞 음운의 영향)	달 [↘] 님[달림]	조음 방법의 변화
작 [↘] 문 (뒤 음운의 영향)	작 [↗] 문[장문]	조음 방법의 변화
해 [↖] 돋이 (뒤 음운의 영향)	해 [↗] 돋이[해도지]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의 변화

[학습 활동]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운이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를 ㄱ~ㄹ에서 골라 보자.

ㄱ. 난로[날로]	ㄴ. 만이[마지]
ㄷ. 실내[실래]	ㄹ. 톱날[툼날]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 과제]
‘작다/적다’ 중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온라인 사전에서 ‘작다’를 검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말해 보자.

ㄱ. 민수는 진서에 비해 말수가 (작다/적다).
ㄴ. 키가 커서 작년에 구매한 옷이 (작다/적다).
ㄷ. 오늘 일은 지난번에 비해 규모가 (작다/적다).
ㄹ. 그는 큰일을 하기에는 그릇이 아직 (작다/적다).
ㅁ. 백일장 대회의 신청 인원이 여전히 (작다/적다).

* →: ‘a→b’는 a를 b로 바꿔 써야 함을 나타냄.

- ① ㄱ: ‘작다’의 「1」을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② ㄴ: ‘작다’의 「2」를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③ ㄷ: ‘작다’의 「3」을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④ ㄹ: ‘작다’의 「4」를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⑤ ㅁ: ‘작다’, ‘작다²’와 ‘적다²’를 고려할 때 ‘적다’가 맞겠군.

15. <보기>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자료]
○ 직접 인용: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 ”)에 넣어 인용하는 것. 조사 ‘라고’를 사용함.
○ 간접 인용: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것. 조사 ‘고’를 사용함.

[학습 과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자.

ㄱ. 지아가 “꽃이 벌써 꺾구나!”라고 했다.
→ 지아가 꽃이 벌써 꺾다고 했다.
ㄴ.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어요.”라고 했다.
→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다고 했다.
ㄷ. 나는 어제 지아에게 “내일 보자.”라고 했다.
→ 나는 어제 지아에게 오늘 보자고 했다.
ㄹ. 전학을 간 지아는 “이 학교가 좋다.”라고 했다.
→ 전학을 간 지아는 그 학교가 좋다고 했다.
ㅁ.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자기를 불렀다고 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갠 것들이
 자투리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A]

- 김기택,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

(나)

어저 내 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
 굳은 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
 어우와 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
 <제1수>

셋 넷 다섯 어제인 듯 열 스물 열пят 지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 쉰 예순 넘는단 말인가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하고 늙었느냐
 <제2수>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
 밭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 못하올쇠
 <제3수>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 젊었더니
 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다가 늙어지면 거짓 것이*
 <제4수>

㉡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 할까
 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
 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하노라
 <제5수>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
 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
 청년의 아니하면 늙은 후 또 내 되리
 <제6수>
 - 김약련, 「두암육가」 -

* 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로다.
 * 거짓 것이: 거짓말처럼 허망한 것이.

* 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하고 과거
 급제는 하늘에 달렸으니.

16.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며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가)의 화자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혀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며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의 ‘잠깐 초록을 본’ 것과 (나)의 ‘검던 털’이 하얗진 모습
을 본 것은 사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② (가)의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를, (나)
의 ‘밭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는 넉넉지 않은 현
실을 초래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를 통해 ‘초록’이 도시 공
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나)의 ‘늙은 후 또 내 되리’를 통해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
- ④ (가)의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에서 ‘초록’
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의 ‘급제도 헛일’에서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있군.
- ⑤ (가)의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초록’의 새로운 모습
을 발견한 놀라움을, (나)의 ‘이미 늙었구나’는 현재의 처지
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군.

1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이 갖는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어 대상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모순된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어저 내 일이야’에 담긴 한탄은, <제2수>의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한 데서 비롯되는군.
- ② <제1수>의 ‘노대에 도상비로다’에 담긴 애상감은, <제4수>의 ‘늙어지면 거짓 것이’로 이어지는군.
- ③ <제2수>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에 담긴 반성은, <제4수>의 ‘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지 말라는 당부로 나타나는군.
- ④ <제3수>의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과 <제6수>의 ‘내 못하여 애달프니’에는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는군.
- ⑤ <제5수>의 ‘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은, <제6수>의 ‘너희더러 하라’에서 권유하는 내용이겠군.

20.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애정이, ㉡에는 청자를 향한 화자의 원망이 나타나 있다.
- ② ㉠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이질감이,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가, ㉡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 있다.
- ④ ㉠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절대적이라고 믿어 왔던 시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 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 내고자 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 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이 시기의 큐비즘을 ㉠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대상의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었다. 이것을 ㉡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 기법으로는 ‘과피에 콜레’가 있다.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무늬의 종이를 직접 붙였다.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회화 예술에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 ②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 ③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
- ④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 ⑤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에 미친 영향


2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
- ②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결과이겠군.
- ③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희생한 결과이겠군.
- ④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결과이겠군.
- ⑤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이겠군.

2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와 달리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 낸다.
- ② ㉠는 ㉡와 달리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
- ③ ㉡는 ㉠와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 ④ ㉡는 ㉠와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한다.
- ⑤ ㉠와 ㉡는 모두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이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집들은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광원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과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입방체(cube)를 그렸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큐비즘(Cubism)’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 ①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②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것은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것이겠군.
- ④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설령탕집 주인 ‘달팽 씨’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우연히 신문 기자들에 의해 선행이 과장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달팽 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팽 씨에게서 자꾸 멀어져가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 못 챌 마스크들이 아니었다. 달팽 씨의 미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다.

그러나 달팽 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나는 전과잡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달팽 씨는 듣기에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요목요목 들추어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치한, 사기, 모리배, 폭력..... 등등, 그는 초빙되어 간 그 강단에 서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쳐든 얼굴에 공포를 끼얹었다. 그다음에 그가 보여 주는 연기는 참회하는 자의 흐느낌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론짓곤 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굶겨 가면서 나보다 못사는 사람,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청중들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억거렸다.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 분입니까?”

달팽 씨의 아들딸이 숨 가쁘게 달려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늘이 깔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네의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전과는 달리 남편이 밖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느 아버진 결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그럼, 뭐니까? 아버진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달팽 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맞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을 뿐이다. 어쨌든 달팽 씨의 그러한 ㉠ 폭탄선언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팽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팽 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날 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세상 사람들은 달팽 씨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보은식당의 종업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팽 씨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오늘 A 주간 신문 기자가 왔다 갔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달팽 씨가 그의 부인한테 물었다.

“예, 왔었어요.”

“와서 뭘 물어보니까?”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후우 가슴이라도 쓸어내릴 듯 숨을 내쉬던 달팽 씨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 보이며 물었다.

“그래, 얼마나 쥐여 보냈소?”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뭐라구? 그래,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 봐요. 지난 기 세금도 아직.....”

“뭐야? 도대체 여편네가 장살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 소릴

하는 거야?”

그러나 달평 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한테 맞서 대들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이다.

이때 식당에 와 있던 달평 씨의 **아들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 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거나 계신 겁니까?”

“아빠, 아빠보다 열 배, 아니 백 배, 천 배, 만 배도 더 잘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들이 내놓는 그 공박에 속수무책으로 멍청히 듣고만 있던 달평 씨가 벌떡 일어나 종업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 폭탄선언**을 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 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내 이 말은 더 있다가 하려 했었지만.....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은 빨리 오는 게 피차.....”

여느 때와 달리 말까지 더듬어 대는 달평 씨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들까지 숨을 죽였다.

“너희 셋은 모두 내 핏줄이 아냐. 기철이 년 호남선 기차간에서 주웠고, 기수 년 서울역 광장에 버려진 걸 주워온 거고, 애숙이 년 파주 양갈보촌이 네 고향이지.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느털 어머니 배 속으로 난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달평 씨의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본 다음 황황히 눈길을 피하며, 구원이라도 청하듯 카운터에 앉은 그들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달평 씨의 부인이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그녀가 소리쳤다.

“여보, 이제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예요?”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이처럼 거연히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 전상국,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 -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들은 달평 씨의 강연을 듣고 나서 심드렁해 했다.
- ② 달평 씨의 아들딸은 어머니의 발언으로 인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 ③ 종업원들은 달평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 ④ 달평 씨는 A 주간 신문 기사를 만나 새로운 선행을 알릴 수 있었다.
- ⑤ 달평 씨의 부인은 어려워진 식당 운영에 대해 화를 내는 남편에게 맞서 대들지 않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주인공인 ‘달평 씨’가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 씨는 언론에 의해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그것에 중독되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 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낸다. 그러한 허위의식으로 인해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다.

- 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 씨의 모습에서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나는군.
- ②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공개하자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달평 씨에게 씌워’진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달평 씨의 허위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④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느냐고 묻는 ‘아들딸들’의 말을 통해 달평 씨가 보여 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 ⑤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인 ‘그네의 외침’은 달평 씨가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아내의 저항이겠군.

28.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사건의 초점을 다른 인물로 전환시키려는 행위이다.
- ② ㉡은 다른 인물들이 과거에 벌인 일들을 폭로하는 행위이다.
- ③ ㉠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은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 ④ ㉡은 ㉠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려는 행위이다.
- ⑤ ㉠과 ㉡은 모두 반향을 일으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이다.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풍 아내 곁에 앉아 하는 말이

[A]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청루미색* 좋아 마오. 자고로 이런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을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소. 미나리골 박화진이라는 이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고, 남산 밑에 이 패두는 소년 시절 부자였으나 주색에 빠져 다니다가 늙어서는 상거지 되고, 모시전골 김 부자는 술 잘 먹기 유명하여 누룩 장수가 도망을 다니기로 장안에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끝내 똥 장수가 되었다니, 이것으로 두고 볼지라도 청루잡기 잡된 마음 부디부디 좋아 마소.”

춘풍이 대답하되,

[B]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 하되, 이 앞집 매갈쇠는 한잔 술도 못 먹어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비우고개 이도명은 오십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으되 남의 집만 평생 살고, 탁골 사는 먹돌이는 투전 잡기 몰랐으되 수천 금 다 없애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으니, 이런 일을 두고 볼지라도 주색잡기* 안 한다고 잘 사는 바 없느니라. 내 말 자네 들어보게. 술 잘 먹던 이태백은 호사스런 술잔으로 매일 장취 놀았으되 한림학사 다 지내고 투전에 으뜸인 원두표는 잡기를 방탕히 하여 소년부터 유명했으나 나중에 잘되어서 정승 벼슬 하였으니, 이로 두고 볼진대 주색잡기 좋아하기는 장부의 할 바라. 나도 이리 노닐다가 나중에 일품 정승 되어 후세에 전하리라.”

아내의 말을 아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곡 남용 일삼으니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리저리 놓고 나니 집안 형용 볼 것 없다.

㉠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워 말고 슬피 마소. 내 마음에 자책하여 가끔 말하기를, ‘오늘의 옳음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고 한다오. 지난 일은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어이 하여 살잔 말인가?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나니 마음대로 처산하여 의식이 염려 없게 하여 주오.”

춘풍 아내 이른 말이,

㉡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더욱 근심이 많을 것이니, 약간 돈냥이나 있다 한들 그 무엇이 남겠소?”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믿겠거든 이후로는 주색잡기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각서를 써서 줘세.”

[중략 부분 줄거리] 춘풍 아내가 열심히 품을 팔아 집안을 일으키자 춘풍은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조에서 이천 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된다.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장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모두 탕진한 채 추월의 하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한다.

이리 한참 울다가 도로 풀고 생각하되,
‘우리 가장 경성으로 데려다가 호조 돈 이천 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식 염려 아니하고 부부 둘이 화락하여 백 년 동락하여 보자. 평생의 한이로다.’

마침 그때 김 승지 덕이 있으되 승지는 이미 죽고, 만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 급제하여 한림 옥당 다 지내고 도승지를 지낸 고로, 작년에 평양 감사 두 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 감사 하려고 도모한단 말을 사환 편에 들었었다. 승지 덕이 가난하여 아침저녁으로 국록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그 덕에 노부인 있다는 말을 듣고, 바느질품을 얻으려고 그 덕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이 누웠는데 형편이 가난기로 식사도 부족하고 의복도 초췌하다. 춘풍 아내 생각하되,

‘이 덕에 붙어서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도 할까.’

하고 바느질, 길쌈 힘써 일해 얻은 돈냥 다 들여서 승지 덕 노부인에게 아침저녁으로 진지를 올리고, 노부인에게 맛난 차담상을 특별히 간간히 차려드리거늘,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이 은혜를 어찌할꼬?”

주야로 유념하니, 하루는 춘풍의 처더러 이르는 말이,

㉢ “내 들으니 네가 집안이 기울어서 바느질품으로 산다 하던데, 날마다 차담상을 차려 때때로 들여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춘풍 아내 여쭙되,

“소녀가 혼자 먹기 어렵기로 마누라님 전에 드렸는데 칭찬을 받사오니 오히려 감사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못내 기특히 생각하더라.

하루는 도승지가 대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요사이는 어머님 기후가 좋으신지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옵습니다.”

대부인 하는 말씀이,

“기특한 일 보았도다. 앞집 춘풍의 지어미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 의외로 김 승지가 평양 감사가 되었구나. 춘풍 아내, 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승지 대감, 평양 감사 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부인이 이른 말이,

㉣ “나도 평양으로 내려 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하니 춘풍 아내 여쭙되,

“소녀는 고사하옵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대부인이 이른 말이,

㉤ “네 청이야 아니 들겠느냐? 그리하라.”

허락하고 감사에게 그 말을 하니 감사도 허락하고,

“회계 비장 하라.”

하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춘풍의 아내 없던 오라비를 보낼 쏬가?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복 벗어놓고 남자 의복 치장한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청루미색: 기생집의 아름다운 기녀.

* 주색잡기: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비장: 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는 무관 벼슬.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풍은 호조 돈 이천 냥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다.
- ② 춘풍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며 생계를 이었다.
- ③ 춘풍 아내는 춘풍의 잘못에도 가정의 화목을 바라고 있다.
- ④ 도승지는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두 번 맡게 되었다.
- ⑤ 대부인은 도승지에게 춘풍 아내의 정성을 칭찬하였다.

30.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권위를 내세워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B]는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여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③ [A]는 [B]의 내용을 예측하여 반박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 ④ [B]는 [A]의 반례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영웅의 행적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31.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 ② ㉡: 앞으로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호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 동행을 권유하고 있다.
- ⑤ ㉤: 신의를 바탕으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가 중심이 된다. 춘풍은 가장이지만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춘풍 아내는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도면밀하게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되는 특징으로 인해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이 부각된다.

- ① 춘풍이 가난을 불평하며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에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춘풍이 전곡을 남용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것에서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춘풍 아내가 사환에게 정보를 얻고 김 승지 덕 대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주도면밀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춘풍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 비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남장을 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군.
- ⑤ 춘풍이 각서를 쓰고,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군.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惡)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性)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중에서 이의를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좇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心)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 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偽)라고 한다.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禮)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예란 위를 ㉡ 추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聖人)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순자는 ㉣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 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善)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 신뢰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나)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 명명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 사회 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 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 구현된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 ④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4.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 ②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 ③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고, 통치자는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④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 ⑤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②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 ③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 ⑤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3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 ②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 ③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 ④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 ⑤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37.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생물학자인 개릿 하딘은 공유지에서의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소 떼들을 목초지에 풀어 놓는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 ①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 ②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겠군.
- ③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겠군.
- ④ 순자는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을 이해하겠군.
- ⑤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8.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② ㉣: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 ③ ㉤: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
- ④ ㉢: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
- ⑤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39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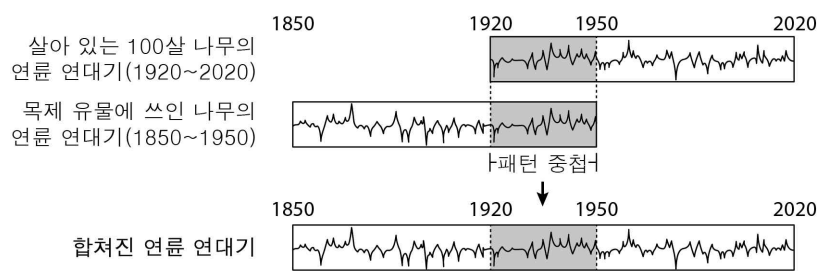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 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 규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성장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성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 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면 성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성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성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살아 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지금 살아 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성장하던 기간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 보유하고 있다.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 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변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 간주된다.

[A]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재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하지만 변재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 나간 변재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재 나이테 수를 참고한다.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재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 있는 변재 나이테 수를 빼,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 낸 변재 나이테 수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2년을 더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 벌채: 나무를 베어 냄.

39. 밑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하여 있다.
- ② 변재는 성장 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 밝은 색상을 띤다.
- ③ 나무의 수령은 변재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 ⑤ 심재 나이테만 남아 있다면 연륜 연대 측정은 불가하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진다.
- ②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
- ③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나무가 성장한 결과를 보여 준다.
- ⑤ 현재 국내에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가 존재한다.

4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연륜 연대 측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 연대 측정]

I. 측정 참고 자료

-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 중 서랍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음.
- 서랍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함.

II. 유의성 및 수령별 평균 변재 나이테 수 자료

표준 연대기	t값	G값	평균 변재 나이테 수	
			수령 100년	수령 150년
a산 소나무	3.7	69%	60개	77개
b산 소나무	3.2	60%	58개	65개

III.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 연도 부여 자료

- ①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의 연대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 ②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년까지일 것이다.
- ③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 ④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재 나이테 수를 참고하면 가공할 때 잘려 나간 변재 나이테 수는 3개일 것이다.
- ⑤ 벌채한 나무의 건조 기간을 고려하면 서랍장의 제작 연도는 1804년에서 1805년 사이일 것이다.

43. ㉠ ~ ㉣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밝히는
- ② ㉡: 말라 죽을
- ③ ㉢: 헤아리면
- ④ ㉣: 가지고
- ⑤ ㉤: 여겨진다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동물원의 코끼리들이 도심으로 탈출했다. 근처 선거 유세장에서는 정치인이 부상을 당하였고,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조련사는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코끼리를 풀어 준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 와 조사를 받는다. 참고인 자격의 의사와 아들의 면회를 온 어머니도 함께 있다.

조련사: 정말인데. 코끼리들은 공연하면서 많이 우는데. 답답하다고 우는데. 슬퍼서 우는데. 난 다 알고 있었는데. 코끼리들이 며칠 전서부터 도망갈 조짐을 보인 것도 알았는데. 도망가려고 의논하는 소릴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은 공원에 갈 때 다른 날과 다르게 빨리 걸었는데. 난 눈치를 챘는데. 오늘이구나. 다른 조련사들이 나한테 다 말기고 매점에 갔을 때, 코끼리들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거위들이 꺽꺽댈 때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나도 코끼리랑 눈이 마주쳤지만 휘파람을 불었는데. 못 본 척 휘파람만 불었는데. 도망가라고. 가서 가족들 애인들 만나라고 일부러 못 본 척했는데.

어머니: 겁을 많이 먹었어요. 두려우면 말이 많아져요.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조련사를 닦아 주려 하나 조련사가 피한다.

의사: (조련사에게) 도망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금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리로 도망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직면하세요. 직면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정정당당하게 직접 부딪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련사가 외면한다.

형사: (담배를 비벼 끄고) 야, 인마! 나 똑바로 쳐다봐. 너 아까 시인했지? 시켜서 했다고. 그들이 널 1년 전부터 코끼리 조련에 투입했잖아.

조련사가 외면한다.

어머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난 그저 착한 마음에 코끼리들을 풀어주고 싶었잖아. 네가 그랬잖니? 동물들이 밧줄에 묶여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꼭 네가 묶인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왜 말을 못 해? 왜 그렇게 말을 못 해?

조련사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하다. 그는 발을 구르고 팔을 휘두르고 고개를 흔들며 몸으로 그 답답함을 호소한다.

조련사: 진짜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형사: (소리를 지른다) 가만히 앉아!

의사: 직면하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 애야, 정신 차려.

(중략)

조련사: (꽤 지쳐 있다) 내가 했는데. 다 내가 했는데.

형사: (조련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만, 그만. 진정해. 거기 까지. 잘했어. 오후에 기자단이 오면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음모가 드러나는 거지. 걱정 마. 너 가벼운 문책을 받는데 그치도록 손씨 줄게.

이때, 친절한 노크 소리. 느닷없이 코끼리가 들어온다. 코끼리는 오로지 조련사에게만 보인다. 따라서 조련사와 코끼리의 대화는 아무도 들을 수 없다.

조련사: 삼코!

코끼리가 조련사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운 후 가슴에 번호표를 달아준다.

코끼리: 57621번째 코끼리가 된 걸 축하해.

코끼리가 조련사의 목에 화환을 걸어 준다. 코끼리가 조련사를 형사가 있는 쪽으로 보낸다. 이때부터 말하는 사람에게만 차례로 조명이 비춰진다. 조련사에게 조명이 비춰질 때마다 그는 조금씩 코끼리로 변해 있다.

형사: (조련사에게) 넌 톱기사로 다뤄질 거야. 다른 애긴 집 어치우고 유세장 얘기만 해. 어떻게 유세장으로 코끼리를 유인했는지. 고생했다. 배고프지? 좀 이따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자. 기자 회견 때는 김창건 의원 이름을 분명히 말해. 그래야 네 혐의가 쉽게 풀릴 테니까.

조련사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올려 이마에 경례를 붙인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어둠 속에 있던 코끼리가 그에게 조끼를 입힌다. 코끼리가 그를 의사에게 보낸다.

의사: 고백한 내용, 모두 녹음했어요. 코끼리를 사랑할 순 있지만 그건 병이에요. 병을 고치는 건 문제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선생님의 인정은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선생님께도 곧 진짜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닌 진짜 여자.

조련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한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화려한 벨벳 모자를 씌운다. 코끼리가 그를 어머니에게 보낸다.

어머니: 어찌됐니. 순진하기만 한 걸.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인생 뭐 있니?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도 넌 여전히 착하고 멋지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누가 너처럼 용감할 수 있니? 그래, 다 풀어 줘. 다 초원으로 데리고 가. 개구리도 코끼리도, 엄마도 아빠도 다, 다 데리고 가. 사람들이 나중엔 알 거야.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혹시 아니? 노벨 평화상이라도 줄지.

조련사가 어머니를 살짝 포옹했다 풀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커다란 코가 붙어 있는 머리를 씌워 준다. 어느새 조련사는 코끼리와 똑같은 형상을 갖췄다. 조

명이 서서히 무대 전체를 비춘다. 형사, 의사,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가 관철된 듯, 결의에 찬 박수를 친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된다. 마치 서커스를 보려고 몰려든 관중의 박수 소리처럼. 조련사와 코끼리는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시작한다.

- 이미경, 「그게 아닌데」 -

4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련사는 코끼리들이 동물원에서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했다고 말했다.
- ② 형사는 조련사에게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 하라고 다그쳤다.
- ③ 어머니는 조련사가 한 행동의 원인을 조련사의 심리나 성품에서 찾았다.
- ④ 의사는 조련사의 말과 행동을 병과 연관 지어 해석했다.
- ⑤ 형사, 의사, 어머니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조련사를 설득할 방법을 모색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 단절의 문제를 조련사가 코끼리로 변해 가는 과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조련사는 상대가 자신만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결국 조련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의지에 맞추어 순응하는 수동적인 처지가 된다.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는 결말은 그가 회복 불가능한 단절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① 조련사가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고, 의사와 형사의 말을 외면하는 것에서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엿볼 수 있군.
- ② 조련사가 꽤 지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을 엿볼 수 있군.
- ③ 조련사가 코끼리로 조금씩 변하면서 형사, 의사의 말에 미소를 짓는 것에서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조련사가 코끼리의 형상을 갖춘 뒤 형사, 의사, 어머니가 결의에 찬 박수를 치는 것에서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된 만족감을 엿볼 수 있군.
- ⑤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어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하는 것에서 동물원의 코끼리와 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처지로 전락했음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